

2023 주요 수출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

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
연간 기준·규격 변동사항
및 시사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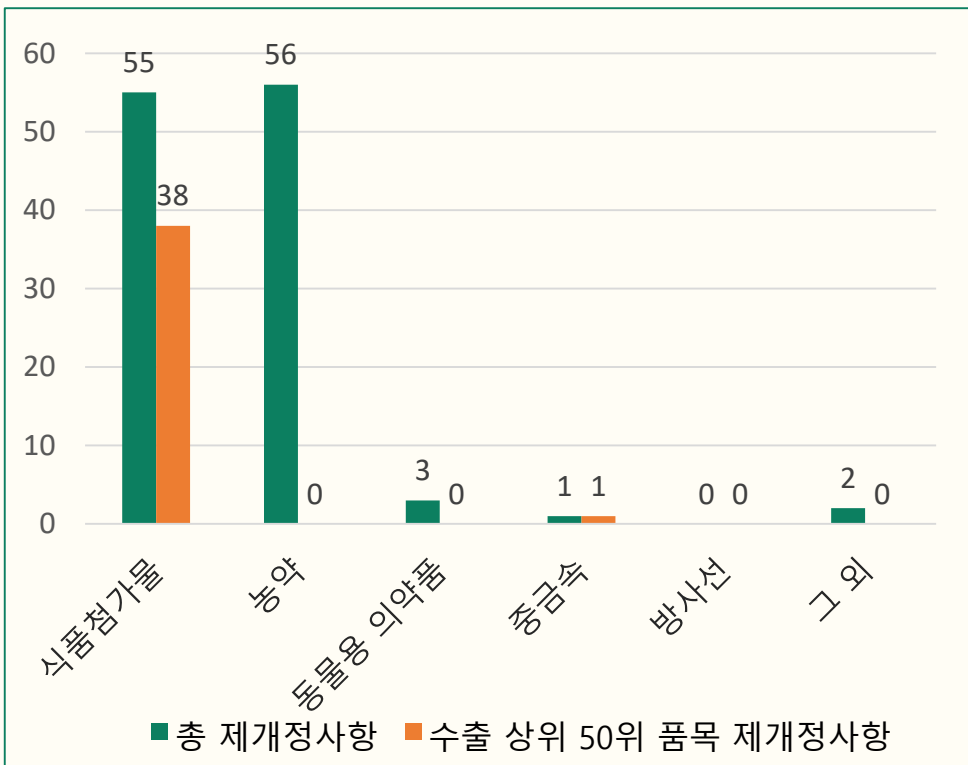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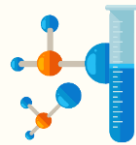
전체 조사국 변동사항



- 2023년 기준 조사대상 22개국 전체 가공식품에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**총 제·개정사항은 총 117건**이며, **가공식품 수출 상위 50위 품목 제·개정사항은 39건**으로 **33.3%**에 해당됨
- 국가별 현황은 **EU의 변동사항이 총 75건**으로 가장 많았으며, **중국 19건, 호주 10건** 순으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제·개정사항이 많음
- 따라서 **EU, 중국,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로 요구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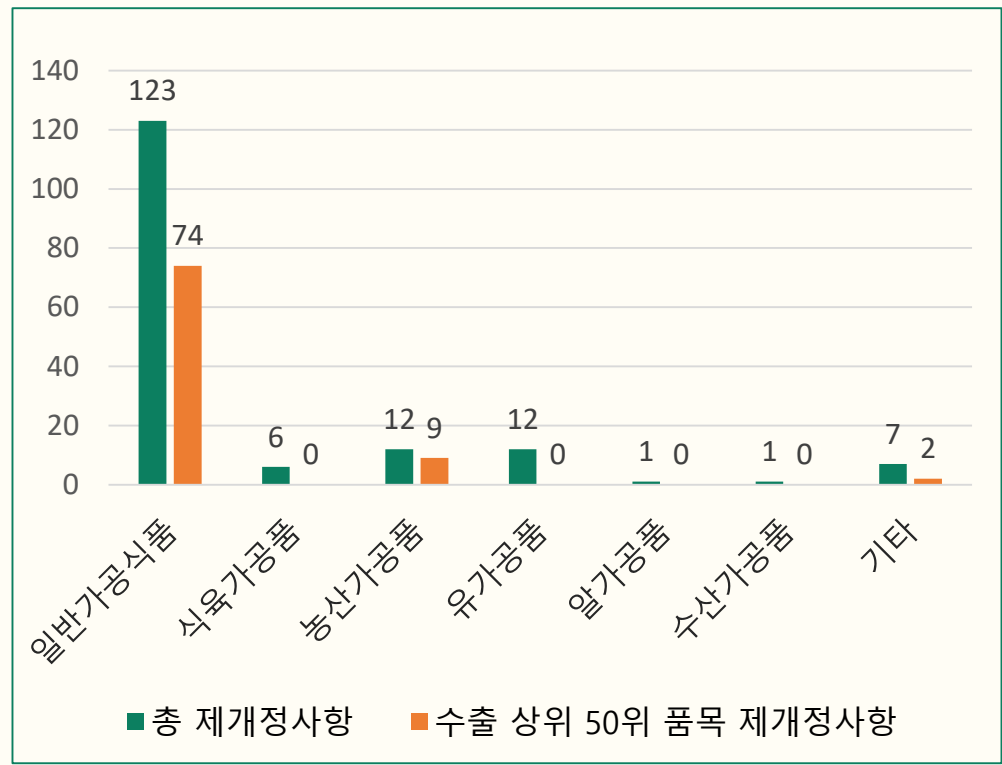
물질별·식품유형별 변동사항

◇ 물질별 변동사항



- **총 제·개정사항 117건** 중 **농약** 관련 사항이 **56건(47.9%)**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, 뒤이어 **식품첨가물** 관련 사항이 **55건(47.0%)**으로 많음
- **가공식품 수출 상위 50위 품목**에 대한 제·개정사항의 대부분은 **식품첨가물(97.4%)** 관련 내용으로 가공식품 수출 시 해당국의 **규정 변동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**

◇ 식품유형별 변동사항



- **식품유형 기준**으로 총 제·개정사항은 **162건** 발생하였으며, 가공식품 **수출 상위 50위 품목 제·개정사항은 85건** 발생함
- 총 제·개정사항과 가공식품 수출 상위 50위 품목에 대한 제·개정사항 모두 **일반가공식품 (과자류 및 빵류, 음료류 등)에서 가장 많은 제·개정이 발생함**

※ 기준규격 제·개정 시 다수의 식품유형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식품유형별 기준으로 분류 시 총 제개정건수와 상이할 수 있음

국가별 주요 변동사항

◇ 유럽연합(EU)



- EU에서는 **시리얼류, 영아용 조제유류** 관련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변동이 가장 많았음

[시리얼류]

- **3'-Sialyllactose sodium salt**
: 2.5 g/kg까지 사용 가능
- 표고버섯(*Lentinula edodes*) 균사체에 의해 발효된 완두콩 및 싹 단백질
: 33 g/100 g까지 사용 가능
- **vitamin D₂ 버섯분말**
: 2.2 µg/100 ml까지 사용 가능
- 대장균 W(ATCC 9637) 에서 유래된 **6'-sialyllactose sodium salt**
: 5 g/kg 까지 사용 가능

[영유아 조제유류]

- 대장균 BL21(DE3)으로부터 파생된 **Lacto-N-tetraose**
: 최대 1.82 g/L까지 사용 가능
- **2'-Fucosyllactose**
: 1.2 g/L 까지 사용 가능
- **6'-sialyllactose sodium salt**
: 0.70 g/L 까지 사용 가능
- **Lacto-N-neotetraose**
: 0.6 g/L 까지 사용 가능

◇ 중국



- 중국에서는 **음료류** 관련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변동이 가장 많았음

[음료류]

- **Taurine** : 0.1 ~ 0.6 g/kg 까지 사용 가능
- **Vitamin B₁와 Vitamin B₂**
: 2 ~ 5 mg/kg 까지 사용 가능
- **Blueberry anthocyanins**
: 0.8 g/kg 까지 사용 가능
(액체음료 기준, 고형음료의 경우 액상 질량으로 환산)
- **xanthan gum**
: 단백질 음료 : 0.75 g/kg, 향 첨가 음료 : 0.5 g/kg

◇ 호주



- 호주에서는 **식용유지류, 당 시럽류** 관련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변동이 가장 많았음

[식용유지류]

- **Aspergillus niger** 유래 **phospholipase A₁**
: GMP 식물성 기름의 검 제거에 사용 가능

[당 시럽류]

- **GM Bacillus licheniformis** 유래 **β-amylase**
: GMP 로 사용 가능
- **GM Aspergillus niger** 유래 **glucoamylase**
: GMP 로 사용 가능

2023년 주요 이슈



- 식품 표시 및 **첨가물 등과 관련된 사항**이 세계 각국의 **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음**
- 국제정세 불안 및 원료 가격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**비관세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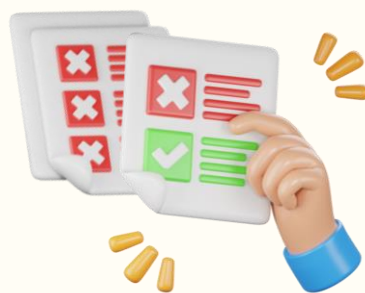
- 2023년 식품첨가물의 제·개정 사항은 **EU, 중국, 호주**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



- EU, 호주에서는 자국 식품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**신기술로 생산된 식품첨가물, 가공보조제 등의 사용 확대**가 두드러짐



- 중국에서는 조제유류, 음료류, 전분식품 등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등록 및 기준·규격 개정 관련 이슈가 많이 나타남



- 국내에는 미등재된 첨가물이 몇몇 국가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, **식품 수출 시 해당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**



- 한국산 식품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국가의 안전관리 강화 등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체크하여야 함